

“개념정립, 현실적 방안 등 출판계 뜻 모아야”

재고도서 처리방안'을 바라보는 각계의 의견

개념 자체의 해석 서로 어긋나 '공익성' 차원에서 처리방안 강구해야

박기봉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



‘재고도서 처리방안’의 문제가 활발히 논의된 것은 출판계 전체의 관심을 집중시켰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재고도서’ 개념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토론의 포인트가 어긋나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는 보기 어렵다. ‘재고도서’ 개념 자체에 대한 보다 진전된 논의는 여기서는 일단 접어두

기로 하고, ‘재고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출판계의 의견도 모아져야 한다. ‘재고도서’ 문제는 ‘공익성’과 연관돼 있다. 자칫 정가제 파괴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고도서 할인매장’을 운영하려면 독자 접근성이 높은 시내 중심가에 최소 50평 이상의 규모를 지닌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 높은 임대료와 운영비를 감당하고도 적자를 보지 않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냐에 대해서는 조합에서도 고심하는 부분이다. 출판계 전체 이익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재고도서’ 처리문제는 꼭 해결해야 되고, 이를 실현해야 한다는 방향에서 조합도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

인위적이기보다 자연발생적인 시장형성 기대 서비스 형태 다양화로 독자에게 기회줘야

허창성

한국출판유통(주) 대표이사



출판물 유통에 있어 가장 걱정스러운 부문은 퇴화하는 도서, 즉 팔리지 않는 불량·부적재고가 문제다. 내용이 불량한 것이 아니라 서점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아 반품되어 쌓이게 된 불량재고는 유통회사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누적되는 불량

재고는 날로 늘고 있고, 처분은 쉽지가 않다. 사실 그런 도서가 가치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반스앤노블’ 서점은 본점에서는 정가판매를 하고 있으면서 바로 건너편에 부설 할인매장을 개설, 퇴화재고의 대폭 할인판매를 실시하여 판매기회를 놓친 도서를 고객에게 선보이는 두 번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부 서점에서 하한가를 이용해 진부화·퇴화도서를 목이 좋은 진열대에 놓아 고객에게 염가로 서비스하기도 한다. 그런 도서에는 봄 춘(春)자(일본)를 판권에 찍거나, 별(미국)을 찍어 표시를 하고 있다. 불량·부적재고의 처분은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인 제2의 루트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우

리도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발생적인 시장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독자들에게 여러 서비스 형태로 잠자고 있는 도서를 한번 더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

제2의 유통시스템 구축이 바람직할 듯 ‘재판매가격유지제’를 지키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이정일

일진사 대표 ·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이사



현행 도서 정가제를 파괴해 가면서 재고도서 유통시스템 구축을 바라는 출판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더구나

되지 않는다고 본다. 함량 미달의 책을 아무리 헐값으로 출고한다 하더라도 판매는커녕 경비는 경비대로 나갈 뿐 출판사 이미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예상 판매부수가 불확실해 적정부수를 생산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재고도서가 되어버린 책들을 처분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면, 재고도서를 처분할 수 있는 제2의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리 제2의 유통시스템이 번창하더라도 현 ‘재판매가격유지제도’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후여야 한다. 그리고 제2유통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해도 책을 끌고루 갖추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또한 출고된 재고도서의 반품처리 문제나 독자의 신뢰성,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다. 출판사 이미지가 손상된다는 인식 때문에 출고 자체를 꺼린다면 결국 다양한 양서 공급이 부족해 고객으로부터 환영 받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

처음 기획단계에서부터 재고도서로 제작하여 할인판매를 할 목적으로 책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팔다 남거나 예상 외로 판매가 부진한 책들을 장기간 보관하려니 창고 사정도 여의치 않아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다.

서점에 진열된 도서가 일정기간 동안은 판매가 잘 되다가 점차 시장성이 떨어져 반품으로 돌아오는 책들을 선별하여 재유통시키는 것은 출판사·서점·독자에게 손해가

‘재고도서’ ‘도서정가제’ ‘비재판본’ 등 개념정립 앞서야 관련업계 참여하는 ‘공청회’로 유통구조 개혁방안 모색

최선호

(주)도서출판 세계사 대표이사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첫째 ‘재고도서’ ‘도서정가제’ ‘비재판본’ 등의 명확한 개념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통례적으로 재고도서의 개념을 크게 생명력이 살아있는 책(출고대기중인 책), 휴면도서(출고가망이 거의 없어 잠자는 책), 사장도서(출고가망이 전혀 없는 죽은

책)로 나뉘는 때 서점에 출고되지 않은 채 그대로 휴면도서가 되는 경우도 많다. 할인 판매할 재고도서의 개념을 ‘반품도서’로만 한정한다는 것인지, 또 시장성이 급격히 떨어져 반품된 도서 가운데 가치 있는 도서만을 선별해 할인판매한다는데, 그렇다면 베스트셀러 위주의 도서판매정책에 지나치게 경

동행하는 즐거움

늘 곁에 있어 드리겠습니다.
마음 편하고 믿음직한 파트너로서
든든한 버팀목의 구실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내용 집필 : 자서전 · 회고록 · 개인출판 · 위인전 등
운문 : 번역물 및 아동물 등의 리라이팅
교정 : 사전류 · 참고서류 · 한서 및 학술서적 등
편집 : 백과사전 · 잡지 · 사보 · 학회지 · 교지 등

기계설비 매킨토시 7대, 집필/교정용 컴퓨터 8대, 레이저 프린터 4대
스캐너 3대, 인화지/필름 출력기 1대
● 24시간 출력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아래아한글 3.0, 프로 96).

함께 일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내용 중 특히 교정·교열 쪽의 일을 자신있게 해낼 수 있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 경력이 반드시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일을 해보신 분이요면 합니다. 근무 시간은 9~6시이며 토요일은 격주 휴무입니다.



三現編輯室

대표자 : 김문권

137-030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6-15(우림빌딩 5층)
전 화 : 549-6883~5 팩 스 : 549-6877
천리안 ID : SAMYEUN



사된 견해에서 나온 주장은 혹아닌지, '재고도서 공급 선정 위원회'를 설치하여 질 좋은 재고도서를 선별한

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다. 또 비재판본과 재고도서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한계설정도 분명히 정리돼야 한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 출판사 자유의사에 따라 재판매가격본으로부터 제외된 책인 비재판본제도는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1년 혹은 3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에만 기준을 두고 결정할 게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평균 판매부수에 따라 재판매가격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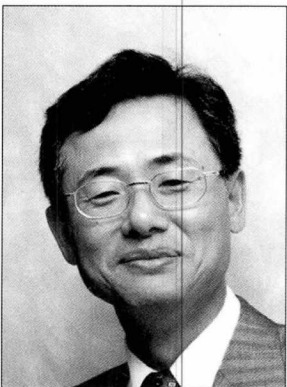
둘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제1의 유통시스템인 현재 유통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이다. 출판계·서점계·독자·유관단체·정부의 공식 관련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개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별도의 유통시스템을 만드는 문제든, 현 정가 판매제를 유지하든 보다 시급한 과제는 이것이라 본다.

셋째는 재고물량의 처리를 다양화하여 활로를 찾는 방안을 마련하지는 제안을 하고 싶다. 일례로 재고물량 가운데 가치 있는 책을 선별하여 작은 도서관이나 군부대(진중문고), 각급학교, 고아원, 양로원, 독서클럽 등 책을 꼭 필요로 하는 곳에 기증하는 방법이다. 이는 출판계뿐 아니라 서점계도 공감대를 형성, 참여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자 한다. ♦

외국사례의 철저한 검증연구로 방안 찾길 특정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실시

김병준

(주)지경사 대표이사



재고도서('휴면도서'란 말이 정확한 표현 같으나 알려진 말이 '재고도서'이므로)는 발생할 수밖에

에 없고, 그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유통체계 탓도 아니고, 또 출판사가 쏟아내는 '쓰레기'는 더더욱 아니다. 무한경쟁시대의 필연적인 산물일 뿐이다. 이미 발생한 재고도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출판계의 노력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

요컨대 재고도서의 효과적 처리는 시급하

지만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정가제를 파괴하고 기존의 유통체계마저 흔들어 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판의 이미지에도 해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번 해보자는 식의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필자의 의견은 우선 재고처리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철저히 검증 연구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를 가지고 특정지역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시행을 거듭해 효과적인 방법을 시급히 추출해내야 한다. 재고도서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아울러 특정 출판사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전 출판인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모두가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만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